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한 윤 옥(Yoon-Ok Han)**
조 미 아(Mi-Ah Cho)***
김 수 경(Soo-Kyoung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3.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조사 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외국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2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
| 2. 선행연구 | 4.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국도서관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외국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은 다문화주의 모델, 동화주의 모델, 배제주의 모델로 구분하여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은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담당 사서, 다문화프로그램 강사,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at understanding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The study examined multicultural services in Korean libraries as well as overseas. The study analyzed library services and education problems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multicultural model, assimilationist model, and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The study surveyed multi-cultural services librarians and educators as well as immigrants and children who have participated in multicultural problems, and finally analyzed problems and requirements of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키워드: 다문화 가정,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도서관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Program, Multicultural Libraries

* 본 연구는 2008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han@kyonggi.ac.kr)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miah100@naver.com)

**** Post-Docto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ksk1101@hotmail.com)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2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3월 9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체제를 유지하여 왔고, 이민족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이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는 별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만 해도 전체 인구의 0.1%인 4만 여명에 불과하던 한국사회의 체류외국인은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269,641명(0.60%)이 되더니 2000년에는 491,324명(1.07%)이 되었고, 그 이후 증가세가 더욱 빨라져서 2005년에는 747,467명(1.55%), 2007년에는 100만 명(2.19%) 이상의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다(법무부 2007). 이로 미루어 볼 때 현대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사회라고 볼 수 없으며,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화의 추이로 볼 때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 구성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데 UNESCO와 OECD는 이미 한국을 다문화국가, 이민국가로 분류하고 있다(한진상 2007).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정, 셋째, 새터민 가정이 그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출현은 농어촌 총각의 결혼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 투입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도 확보되는 등 여러 가지

로 좋은 점이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우리 사회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18,769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교육적 애로를 겪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학습능력이 뒤떨어져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경향을 보이며, 독해·어휘력·쓰기·작문능력 등 저조한 문해력(오성배 2005)으로 인하여 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가 떨어져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하고 있다. 이것은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새터민 가정의 자녀들도 말씨가 다르다는 것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한국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민을 비롯하여 이들의 자녀들에게 문해력을 높여주고, 한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심적 준비를 도와주고, 평생학습을 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규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도서관에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정규학교 교육 이전에 기본적인 언어교육을

포함하여 문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독서자료를 통한 문화이식을 통하여 이주민들의 주류사회의 동화를 도와줄 수 있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들의 교육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외국의 다문화 서비스 현황과 우리나라의 다문화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주류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동화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보다 다문화사회로 일찍 진입한 외국의 도서관과 우리나라 도서관에서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문헌조사로,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현황은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와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인 이주민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문화서비스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2. 선행연구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정은희 2004; 오성배 2005; 김정원 2006; 조영달 외 2006; 김갑성 2006;

박은애 2007; 송선진 2007; 안은미 2007; 김대수 2008; 박은정 2008; 송해경 2008), 다문화 이해교육에 관한 연구(조은태 2006; 박정원 2007; 홍영숙 2007), 다문화 관련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김갑현 2007; 김순필 2008) 등이 있다.

농촌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실태 및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을 조사한 정은희(2004)는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이해 및 표현 언어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어머니의 한국어 강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외모의 차이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에 소극적이 되고 이로 인하여 발달성 언어장애, 주의력 결핍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오성배(2005)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교사, 동료들 상대로 심층 면접을 한 연구 결과,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어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학습과 정체성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학 이후에도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국제 결혼가정 2세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서 성장하므로 언어 발달이 늦어지게 되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학습 부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영숙 2007).

한편,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 노동자 자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몽골 출신 노동자 자녀들의 학교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김정원 2006). 다문화 가정 자녀 10명 중 1명이 초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하였으며, 10명 중 2명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조영달 외 2006).

다문화 관련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은 편이다. 학교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연구(김순필 2008)가 수행되었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 여성들과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수준, 국내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한글교육과 병행하여 한국요리, 전통문화, 전통예절, 자녀지도방법 등 한국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직업교육관련 교육과정의 개설 및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갑현 2007).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해서 이주 여성과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역적으로 다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으로 구분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

서, 다문화프로그램의 강사,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조사 분석

3.1 외국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국제 이주 연구자인 스티븐 카셀(Steven Castle)은 국제이주와 관련된 외국인의 통합방법과 귀화기준으로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을 3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다(김이선, 한건수, 김민정 2006).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 모델에 속하는 미국과 캐나다, 동화주의 모델에 속하는 영국, 배제주의 모델에 속하는 일본, 독일의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고자 한다.

3.1.1 다원주의 모델

다원주의 모델에서는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 민족 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다문화주의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영미계통의 것으로 사회를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관계에 있는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의 공존의 장으로 본다.

(1) 미국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민자나 제2외국

어 사용자를 도서관의 이용자 그룹의 하나로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는 그 지역의 외국인 분포에 따라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도서관을 안내하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주민을 위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은 대다수 이민자인 스페인계를 위한 '가족 스페인어 스토리타임', '스페인어 스토리텔링' 등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으로는 2개 국어 가족 스토리타임, 2개 국어 유아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박미영 2007). 이주민을 위한 미국 도서관 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언어습득을 위한 지원이외에도 해당 국가 언어 외에 이주민 출신 국가의 언어로 된 자료와 다중언어로 된 자료의 구비 및 대출서비스, 컴퓨터와 인터넷을 구비하여 모국과 정착국가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활용교육 제공, 시민권 획득을 위한 준비, 학력검정 시험을 위한 준비, 주요 이주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을 통한 다중언어 참고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용완 2007).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양한 문화를 지역사회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도서관(Pierce County Library)에서는 3,000여종의 한국자료를 서비스함은 물론, 인근의 University Place Library의 "한국 문화유산의 날" 이벤트를 후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텍사스주 알링턴 공

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전체 도서관 예산의 약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언어구입비에 할당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는 한국어어를 비롯한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의 아시아어와 아라비아어, 네델란드어, 독일어, 이집트어 등 세계 각지의 언어 44개어에 대한 24,122권의 장서를 가지고 다언어 자료 봉사를 제공한다(최연미 2005).

(2) 캐나다

캐나다의 Surrey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다문화 기관과 민족그룹 리더, 다양한 언어 능력자를 고용하여 연계 업무관계를 만들고 있으며, 언어와 인종의 소수 주민을 위하여 56개의 민족그룹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의 약 54%가 이민자인 리치몬드 공공도서관은 이미 2000년에 '다언어 서비스과'를 만들고 도서관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자로서 '이민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에드몬튼 공공도서관은 이민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지역개발을 위한 일터자리를 만들었다. 2001년에 비캐나다 출신의 30%가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이는 캐나다 출신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로 이 시기에 다문화 대출은 28%가 늘었으며, 전체 대출에 12%를 차지했다(서일민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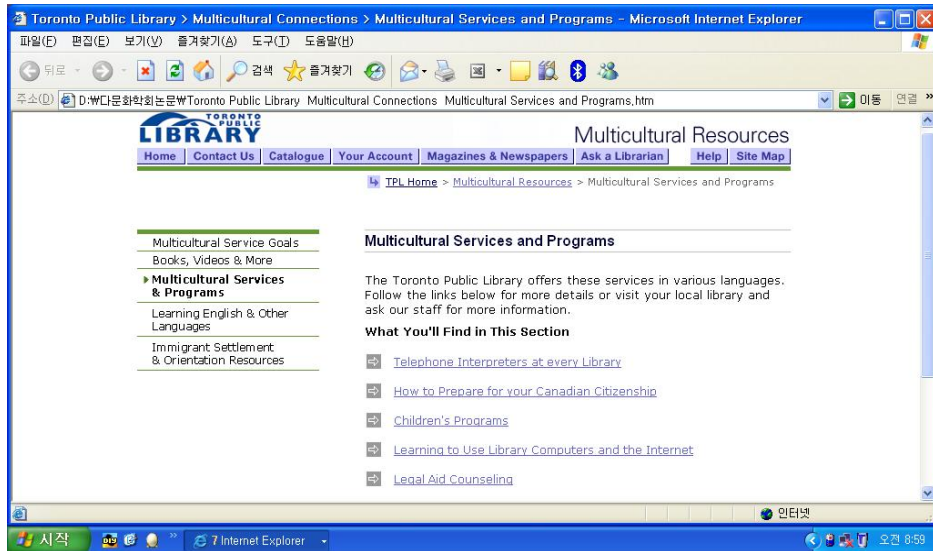
한편,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경우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이 아주 모범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

토론토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이 7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

1) Toronto Public Library > multicultural resources > multicultural services and programs.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mul_ser_index.jsp>.

부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Telephone Interpreters at Every Library 이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도서관직원에게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방문자가 자기 모국어를 말하면 통역자가 영어로 도서관직원에게 통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How to Prepare for your Canadian Citizenship이다. 이 서비스는 캐나다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Children's Programs -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에는 'Dial-a-Story'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은 7살 이전의 어린이들이 전화를 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11개 언어로 준비하여 들려주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방문자를 위해 'English can be fun'이란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신청자를 위해 17개의 언어로 신청서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어 신청서도 포함되어

있다.²⁾ 그리고 'Leading to Reading'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영어로 소통가능한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연습하고, 학교 숙제를 도와준다. 넷째, Learning to Use Library Computers and the Internet으로 이 프로그램은 정보활용교육의 일환이며 새로운 방문자를 위해 웹 메일을 읽고 쓰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다섯째, Legal Aid Counseling이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내의 법률 상담서비스와 함께 지역사회 법률관련 전문상담소를 연계해 주는 서비스다. 여섯째, Immigrant Settlement Information at the Library는 여름동안 이민자들에게 정착을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일곱째, English Conversation Circle은 거주 지역별로 영어회화 클럽을 구성하여 그룹을 만들어 제공한다.



<그림 1>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2)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pdfs/multicultural/english_fun_form_korean.pdf>.

3.1.2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 model)

동화주의 모델은 이민자들이 주류집단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을 기대하는 일방적 통합정책이다. 따라서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용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의 결과 결국은 다수집단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단일문화주의를 취하는 경우이다. 이민자와 소수민족 집단은 그 특징과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히 보존되는데 그치고, 다수에 의해 정의된, 다수에 적합한 문화적 행태들을 받아들인다.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1) 영국

영국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소수 민족을 위한 교육기회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의 교육기회와 관련된 연구들도 영어에 서투른 초·중등학생들에게 공교육에서의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차이와 학업 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점화하기도 한다.

정부는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기회의 배분 방안과 더불어 다인종 다문화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방안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소수 민족의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과 선입관 또는 인종적 편견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의 다문화 교육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

에서 나타나는 인종간의 격차와 갈등에 관련된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로 특별위원회인 'Future of Multi-Ethnic Britain'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소수 인종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다문화의 이해와 공존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오성배 2006).

3.1.3 배제주의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배제주의 모델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과 같은 어떤 사회영역에는 허용되고 복지체계나 시민권과 같은 것에는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일본,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대만, 중동 산유국 등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1) 일본

일본의 도서관 중 1988년 오사카에 있는 生野市立圖書館에서는 공공도서관 최초로 '한국, 조선어 코너'를 신설하였다. 다문화서비스 코너를 설치하고 있는 곳은 시정촌도서관 2,571개관 중 786개관(30.6%)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자료 코너에서 소장하고 있는 어린이용 외국어 자료의 언어별 비율을 보면, 영어가 63.2%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 및 조선어가 25.9%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단순히 자료를 구비해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나라의 민화, 옛이야기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번역에 힘을 기울

〈표 1〉 일본 공립도서관 다문화코너 언어별 도서 비율

언어	시정촌 도서관 비율(%)
한국어	25.9
중국어	22.5
그 외의 아시아권 언어	13.8
영어	63.2
스페인어	17.3
포르투갈어	16.7
그 외의 유럽권 언어	20.5
기타	3.3

출처 : 日本圖書館協會(2004), 公立圖書館兒童 서비스實態調査報告.

여 특유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 줄 때는 한글로 쓰여진 동화책을 전시하면서 들려주거나 전통놀이를 병행하여, 일본에 사는 외국아이들이 모국어로 된 자료들을 읽을 수 있는 혜택을 줌과 동시에 일본 어린이들도 타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같이 어울려서 서로 지역문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외국 국적의 어린이들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어린이들도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다양한 문화를 어울려 체험하고 서로 경험시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2) 독일

1970년대부터 공공도서관에서 다문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 요즘은 도서보다 출신국의 음악 테이프, CD, 신문, 비디오, 영화 등의 요구가 다양하다. 주민의 15%가 외국인인 뉴렌베르크에서 1987년에 '대외국인도서관서비스'부분이 설립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관심과

수요에 적합한 장서구성을 중요시 여기며, 가르빙그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이 외국인의 체재 장소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터키인 대상 행사, 지역의 소수민의 관심 테마에 대한 토론회, 관련도서 전시를 하기도 한다(서일민 2008).

주민의 27%가 외국인인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분관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외국어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서비스를 인구 구성을 생각한 당연한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독일 남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슈투트가르트의 '귀로 읽기-슈투트가르트 프로젝트(영어로는 "Listen Out! - The Stuttgart Reading Project")'는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어린이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이 '귀로 읽기'프로젝트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언어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한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린이들의 언어나 독서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과 같은 가시적 효과를 금방 기대하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시작 이래 어린이도서관의 대출이 1.5배 증가했다거나, 책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다(윤정옥 2007).

3.2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

3.2.1 조사개요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표 2〉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구 분	지역(도서관명)		지역(조사대상 도서관)
대도시	서울(용산도서관)		서울(1)
	부산(구포도서관)		
	대구(두류도서관)*		
	대전(대전평생학습관)		
중소도시	인천(인천광역시중앙도서관)		부산(1)
	경기(안산시립관산도서관)		대구(1)
	경기(아름드리도서관)**		대전(1)
	강원(삼척 평생교육정보관)		인천(1)
	충청(충청서부평생학습관)		경기(4)
농산어촌	경기(고양시행신도서관)*		경남(1)
	경기(진건도서관)		강원(1)
	경기(가평군립도서관)*		충청(2)
	경남(장유도서관)		전남(1)
	충청(태안도서관)		제주(1)
전남(나주남평도서관)			
제주(애월도서관)			
설문지 종류	배포기관 수	회수기관 수	회수된 설문지 수
사서용	16	10	11
강사용	13	13	18
이주민용	12	9	60
어린이용	12	3	17

* 사서질문지를 추가배부한 도서관, ** 사서와 강사질문지를 추가배부한 도서관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담당 사서, 다문화프로그램 강사,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면서 설명하는 방법과 해당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담당직원의 협력을 얻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2008년 8월 1일에서부터 9월 27일까지 하였으며, 배포 및 회수현황은 〈표 2〉와 같다.

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람 및 참고 봉사 업무, 수서업무가 각각 3명(15%), 분류/목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업무 총괄 및 예산을 담당하는 경우가 각각 2명(10%), 어린이실(또는 유아실) 업무가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담당자들은 다문화 업무 이외에 도서관 행사, 도서관 신문 발간, 자료실의 총괄적 운영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3.2.2 조사 결과 분석

(1) 다문화 프로그램 담당 사서

① 담당 직원의 주된 업무

다문화를 담당하는 직원의 주된 업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업무 담당자가 9명(45%)

②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 어려웠던 점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 어려웠던 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4명(21.1%), 강사섭외의 어려움과 상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연계의 어려움이 각각 3명(15.8%), 외국어자료의

입수 어려움과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각각 2명(10.5%), 다문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겠다가 1명(7.69%)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③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은 예산확보가 9명(18.8%),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개발이 6명(12.5%), 장서개발, 강사 확보, 적극적인 홍보, 담당직원의 전문교육이 각각 5명(10.4%),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4명(8.3%),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가 3명(6.3%), 전산시스템 보완,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관심, 기타가 각각 2명(4.2%)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④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활동 및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방안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조사한 결과, 대전평생학습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우송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목원대학교 이주 여성연구소와 연계하여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홍보 및 연구 자료 공유, 각종 다문화 관련 사업 운영 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평군립도서관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군청 사회복지과와 교육대상자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의 필요성은 개설하는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없도록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린 고급화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국' 적응을 위한 한국어 강습 및 생활 안내는 센터에서 맡고 도서관에서는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표 3〉 담당 직원의 주된 업무

경력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백분율(%)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업무		5	2	2	9	45.0
수서업무		1	2		3	15.0
열람 및 참고봉사업무		1	1	1	3	15.0
분류, 목록업무		1	1		2	10.0
업무 총괄 및 예산				2	2	10.0
어린이실(또는 유아실)업무			1		1	5.0
합계		8	7	5	20	100.0

〈표 4〉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 어려웠던 점

어려운 점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백분율(%)
예산확보가 어렵다.		1	2	1	4	21.1
상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연계가 어렵다.		1	1	1	3	15.8
강사섭외가 어렵다.		1	1	1	3	15.8
외국어자료 입수가 어렵다.			1	1	2	10.5
언어소통이 어렵다.			1	1	2	10.5
다문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겠다.				1	1	5.3
기타		3		1	4	21.1
합계		6	6	7	19	100.0

〈표 5〉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

해결점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백분율(%)
예산확보		3	4	2	9	18.8
도서관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개발		1	3	2	6	12.5
장서개발		2	1	2	5	10.4
강사확보		1	3	1	5	10.4
적극적인 홍보		3	1	1	5	10.4
담당직원의 전문교육		2	1	2	5	10.4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과 지원		2	1	1	4	8.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1	2		3	6.3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관심		1		1	2	4.2
전산 시스템 보완		1		1	2	4.2
기타		1	1		2	4.2
합계		18	17	13	48	100.0

프로그램 제공 및 이주 여성들의 독서 및 도서관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관련과 기타가 각각 1명(3.3%)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2) 다문화 프로그램 강사

① 담당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 분야

조사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 강사가 담당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 분야는 한국어 13명(43.3%)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문화 7명(23.3%), 독서관련(독서회, 동화구연 등)이 5명(16.7%), 취미·교양이 3명(10%), 정보화

②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강사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협력과 관심이 13명(21.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12명(19.4%), 개설기관의 의지와 관심이 10명(16.1%), 강사 8명(12.9%), 지역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7명(11.3%), 교통편의 제공 5명(8.1%), 교재, 충

〈표 6〉 담당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 분야

교육프로그램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백분율(%)
한국어		3	9	1	13	43.3
한국문화		1	5	1	7	23.3
독서관련(독서회, 동화구연 등)		4	1		5	16.7
취미, 교양		2	1		3	10.0
정보화 관련			1		1	3.3
기타		1			1	3.3
합계		11	17	2	30	100.0

분한 시설이 각각 3명(4.8%), 충분한 예산 1명(1.6%)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③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19명(27.1%), 한국문화 17명(24.3%), 부모교육 11명(15.7%), 취미·교양, 상담관련이 각각 6명(8.6%), 정보활용 관련이 5명(7.1%), 직업관련 3명(4.3%), 독서관련 2명(2.9%), 기타가 1명(1.4%) 순으

로 나타났다(표 8 참조).

④ 다문화가정의 가족과 내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가족과 내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12명(36.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가족문화체험 6명(18.18%), 가족관계 증진과 의사소통능력 증진이 각각 5명(15.15%), 책읽기 및 영화를 통한 독서치료가 3명(9.09%), 상담프로그램 2명(6.06%)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7〉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부분 \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가족의 협력과 관심	5	8		13	21.0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열의	3	9		12	19.4
개설기관의 의지와 관심	4	6		10	16.1
강사	3	4	1	8	12.9
지역사회의 협력과 관심	3	4		7	11.3
교통편의 제공	4		1	5	8.1
교재	1	2		3	4.8
충분한 시설	2	1		3	4.8
충분한 예산			1	1	1.6
기타				0	0.0
합 계	25	34	3	62	100.0

〈표 8〉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한국어	7	11	1	19	27.1
한국문화	6	10	1	17	24.3
부모교육	4	7		11	15.7
상담관련	2	4		6	8.6
취미·교양	3	2	1	6	8.6
정보활용관련	3	1	1	5	7.1
직업관련	1	2		3	4.3
독서관련	2			2	2.9
기타	1			1	1.4
합 계	29	37	4	70	100.0

〈표 9〉 다문화가정의 가족과 내국인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내국인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역별				백분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다문화 이해교육	6	5	1	12	36.36
가족문화체험	3	2	1	6	18.18
가족관계 증진	2	2	1	5	15.15
의사소통능력 증진	5			5	15.15
책읽기 및 영화를 통한 독서치료	2	1		3	9.09
상담프로그램	1	1		2	6.06
합계	19	11	3	33	100.0

(3) 다문화 가정 이주민

① 응답자의 일반 사항

조사 대상 다문화 가정 이주민의 성별은 여성 58명(96.67%) 남성 2명(3.33%)이다. 응답자 연령은 20대와 30대 각각 25명(각각 43.10%), 40대 8명(13.79%)이다.

② 도서관에서 참여해 본 프로그램의 종류

도서관에서 참여해 본 프로그램의 종류는 한국어교육 31명(33.7%), 한국요리강습 15명(16.3%), 기타 10명(10.87%), 전통문화예절교육 7명(7.61%), 컴퓨터교육 6명(6.52%), 이주여성모임지원 5명(5.43%), 생활취미교육과 한국역사 교육이 각각 4명(4.35%), 문화유적탐방과 자녀 교육지도법이 각각 3명(각각 3.26%), 문화예술이 2명(2.17%), 모국의 문화예술관람 및 교육, 부부역할과 부모역할이 각각 1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해 본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한국요리 강습을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③ 도서관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는 한국어교육 24명(16.22%), 한국요리강습 20명(13.51%), 자녀 교육지도법 18명(12.16%), 여가 문화예술 17명(11.49%), 도서관 정보활용 및 컴퓨터교육과 교과 학습지원이 각각 13명(각각 8.78%), 이주여성모임지원 12명(8.11%), 전통문화예절교육과 한국역사 교육이 각각 8명(각각 5.41%), 문화유적탐방 6명(4.05%), 모국의 문화예술관람 및 교육,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각각 4명(2.70%), 기타 1명(0.68%) 순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이주민들은 제공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원하고 있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문화예술, 도서관활용 및 컴퓨터 교육에 국한되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④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가 29명(33.72%), 도서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와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잘 모른다가 각각 14명(16.28%), 모국어로 쓰여진 불 만한 책이 없다가 11명(12.79%), 기타 6명(6.98%), 시간이 부족하다와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가 각각 4명(4.65%),

〈표 10〉 도서관에서 참여해 본 프로그램의 종류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참여해본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10	9	12	31	33.70
한국요리강습	2	5	8	15	16.30
전통문화예절교육	4	2	1	7	7.61
컴퓨터교육	2	4		6	6.52
이주여성모임지원	3	2		5	5.43
생활취미교육 : 공예, 사진찍기, 꽃꽂이	1	1	2	4	4.35
한국역사 교육		3	1	4	4.35
문화유적탐방		2	1	3	3.26
자녀 교육지도법 : 엄마의 역할, 학원보내야 할 지 여부, 자녀독서교육		2	1	3	3.26
문화예술 : 연극, 악기, 미술, 무용	1	1		2	2.17
모국의 문화예술관람 및 교육		1		1	1.09
부부역할과 부모역할		1		1	1.09
취업 기술·자격증 취득교육				0	0.00
기타	4	6		10	10.87
합 계	27	39	26	92	100.00

〈표 11〉 도서관에서 자녀를 위해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원하는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10	11	3	24	16.22
한국요리강습	5	12	3	20	13.51
자녀 교육지도법 : 엄마의 역할, 학교 숙제 봐주기, 자녀독서지도 등	10	8		18	12.16
여가 문화예술 : 종이접기, 연극, 악기, 미술, 무용, 노래, 연극	10	6	1	17	11.49
도서관 정보활용 및 컴퓨터교육	8	4	1	13	8.78
교과 학습지원	7	6		13	8.78
이주여성모임지원	8	4		12	8.11
전통문화예절교육	5	3		8	5.41
한국역사 교육	4	4		8	5.41
문화유적탐방	4	2		6	4.05
모국의 문화예술관람 및 교육	1	3		4	2.70
독서관련 프로그램	3	1		4	2.70
기타	1			1	0.68
합 계	76	64	8	148	100.00

함께 갈 사람이 없다가 3명(3.49%), 시설(편의 시설)이 불편하다가 1명(1.16%)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고 교통

불편에 관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계	백분율(%)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 수 없다		7	13	9	29	33.72
도서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다		7	4	3	14	16.28
어디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잘 모른다		6	6	2	14	16.28
모국어로 쓰여진 볼 만한 책이 없다		2	7	2	11	12.79
시간이 부족하다		1	3		4	4.65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럽다		2	2		4	4.65
함께 갈 사람이 없다		1	1	1	3	3.49
시설(편의시설)이 불편하다			1		1	1.16
기타		4	2		6	6.98
합계		30	39	17	86	100.00

⑤ 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바라는 점

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바라는 점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직원이 있으면 한다가 27명(12.68%),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가 24명(11.27%), 한국 전통 문화,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한다가 23명(10.8%), 자녀 지도, 부부관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와 각종 정보 및 도서관 자료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을 받고 싶다가 각각 21명(9.86%), 도서관에 자주 가기 어려우므로 혼자서도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보조 자료로 책이나 어학 테이프, 영상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가 19명(8.92%),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가 16명(7.51%),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도와 영어 및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가 구비되었으면 한다가 각각

11명(각각 5.16%), 영어 및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관 안내 자료 및 안내판(sign)이 있었으면 한다가 10명(4.69%), 도서관에 오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택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집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가 9명(4.23%)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⑥ 프로그램 운영에 바라는 점

프로그램 운영에 바라는 점으로는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가 10명(27.03%), 한국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한도와 남편 및 시집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았으면 한다가 8명(21.62%), 좀더 쉬운 말로 설명을 했으면 한다가 5명(13.51%), 모국말을 할 수 있는 통역이 있었으면 한도와 직업과 연계된 교육이었으면 한다가 각각 3명(각각 8.11%)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운영에 관해서는 중소도시 이주민의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3〉 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바라는 점

바라는 점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직원이 있으면 한다.		8	13	6	27	12.68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8	13	3	24	11.27
한국 전통 문화, 취미 활동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7	14	2	23	10.80
자녀 지도, 부모관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6	13	2	21	9.86
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정기적으로 받고 싶다.		7	10	4	21	9.86
각종 정보 및 도서관 자료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을 받고 싶다.		5	14	2	21	9.86
도서관에 자주 가기 어려우므로 혼자서도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보조 자료로 책이나 어학 테이프, 영상 자료를 제공받고 싶다.		9	10		19	8.92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9	7		16	7.51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3	7	1	11	5.16
영어 및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가 구비되었으면 한다.		9	2		11	5.16
영어 및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관 안내 자료 및 안내판(sign)이 있었으면 한다.		9	1		10	4.69
인터넷이나 택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집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한다.		3	6		9	4.23
기타					0	0.00
합 계		83	110	20	213	100.00

〈표 14〉 프로그램 운영에 바라는 점

원하는 점(내용)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9		10	27.03
한국생활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한다.		2	6		8	21.62
남편 및 시집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았으면 한다.		1	6	1	8	21.62
좀더 쉬운 말로 설명을 했으면 한다.			5		5	13.51
모국말을 할 수 있는 통역이 있었으면 한다.			3		3	8.11
직업과 연계된 교육이었으면 한다.			3		3	8.11
기타					0	0.00
합 계		4	32	1	37	100.00

⑦ 앞으로 도서관에서 개설했으면 하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도서관에 운영했으면 하는 자녀교육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연령별 체계적인 독서지도 프로그

램이 32명(24.06%), 교과연계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24명(18.05%),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3명(17.29%),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생활에서 마음 상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각각 18명(13.53%), 부모의 모국 문화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17명(12.78%), 기타 1명(0.7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의 주민들은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많이 원했으나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교과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⑧ 시설(자료 포함) 또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시설(자료 포함) 또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으로는 자료를 찾거나 도서관 홈페이지

지를 이용할 때 모국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한다가 8명(34.78%),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가 6명(26.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비되었으면 한다가 5명(21.74%),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영어 혹은 모국어로 된 안내 사인(sign)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가 4명(17.3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의 경우 모국어활용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표 16 참조).

〈표 15〉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도서관에 운영했으면 하는 자녀 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연령별 체계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		13	16	3	32	24.06
교과연계 학습지도 프로그램		9	11	4	24	18.05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12	10	1	23	17.29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8	6	4	18	13.53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생활에서 마음 상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6	11	1	18	13.53
부모의 모국 문화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		7	10		17	12.78
기타				1	1	0.75
합 계		55	64	14	133	100.00

〈표 16〉 시설(자료 포함) 또는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원하는 점(시설자료,시스템)	지역별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합 계	백분율(%)
자료를 찾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모국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한다.		1	7		8	34.78
아이들을 데리고 올 경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적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2	4		6	26.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비되었으면 한다.		2	2	1	5	21.74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영어 혹은 모국어로 된 안내 사인(sign)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4		4	17.39
기타					0	0.00
합 계		5	17	1	23	100.00

4) 다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어린이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서가 13명(61.9%), 학습에 도움을 받거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가 4명(19.05%),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가 3명(14.29%), 영화감상, 인형극, 연극, 빛그림책을 보려고가 1명(4.76%)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표 17 참조).

② 도서관에서 참여해 본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참여해본 프로그램으로는 기타가 9명(30%), 독서프로그램: 독서회, 독서교실, 논술교실이 6명(20%), 동화구연교실 4명(13.33%), 컴퓨터교육 3명(10%), 미술교실 2명(6.67%), 전통문화예절교육, 한국역사교육, 문화유적탐방, 종이접기 각각 1명(각각 3.33%) 순으로 나타났다. 의외로 한국어교육에 참여해 왔다는 응답은 없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문화 어린이들의 여름나기, 방과 후 공부방 참여 등이 있었다(표 18 참조).

〈표 17〉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

도서관 이용목적	지역별				합계	백분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책을 읽거나 빌리기 위해서	10	3		13	61.90	
학습에 도움을 받거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3		4	19.05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3			3	14.29	
영화감상, 인형극, 연극, 빛그림책을 보려고	1			1	4.76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을 위해서				0	0.00	
기타				0	0.00	
합계	15	6	0	21	100.00	

〈표 18〉 도서관에서 참여해본 프로그램

참여해 본 프로그램	지역별				합계	백분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독서프로그램 : 독서회, 독서교실, 논술교실	6			6	20.00	
동화구연교실	4			4	13.33	
컴퓨터교육	3			3	10.00	
미술교실	2			2	6.67	
문화예술 : 연극, 악기, 미술, 무용	2			2	6.67	
종이접기	1			1	3.33	
전통문화예절교육	1			1	3.33	
한국역사 교육	1			1	3.33	
문화유적탐방	1			1	3.33	
한국어교육				0	0.00	
기타	5	4		9	30.00	
합계	26	4	0	30	100.00	

③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만족한 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만족한 점으로는 참여한 후에 수업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가 11명(47.83%), 다른 데서는 접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수업이라 흥미롭다가 5명(21.74%),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가 4명(17.39%), 학교나 학원과의 다른 자유스러운 분위기여서 마음이 편하다가 3명(13.04%) 순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④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불만족한 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불만족한 점으로는 학교나 다른 곳에서 하는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특색이 없다는 응답과 수업 수준이 나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1명

(50%)씩 나타났다(표 20 참조).

⑤ 도서관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유적탐방이 9명(14.29%), 컴퓨터교육이 8명(12.7%), 종이접기와 미술교실이 각각 7명(각각 11.11%), 문화예술, 동화구연교실, 부모님 나라 문화이해 프로그램이 각각 6명(9.52%), 전통문화예절교육이 4명(6.35%), 한국역사 교육, 한국어교육이 각각 3명(각각 4.76%), 독서프로그램, 기타가 각각 2명(3.17%)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 대답한 어린이 중에는 축구교실, 달리기 등 운동교실, 야외활동을 했으면 하는 응답이 있어서 또래의 보통 어린이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1 참조).

〈표 19〉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만족한 점

좋은 점	지역별			합계	백분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참여한 후에 수업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9	2		11	47.83
다른 데서는 접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수업이라 흥미롭다.	2	3		5	21.74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2	2		4	17.39
학교나 학원과의 다른 자유스러운 분위기여서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13.04
기타				0	0.00
합계	14	9	0	23	100.00

〈표 20〉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불만족한 점

불만족한 점	지역별			합계	백분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학교나 다른 곳에서 하는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특색이 없다.	1			1	50
수업 수준이 나와 맞지 않는다.	1			1	50
수업 내용이 지루하거나 별로 도움이 안된다.				0	
수업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0	
그 밖에				0	
합계	2			2	100

〈표 21〉 도서관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진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지역별			합계	백분율(%)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문화유적탐방	6	3		9	14.29
컴퓨터교육	8			8	12.70
종이접기	5	2		7	11.11
미술교실	5	2		7	11.11
동화구연교실	4	2		6	9.52
부모님 나라 문화이해 프로그램	4	2		6	9.52
문화예술 : 연극, 악기, 미술, 무용	5	1		6	9.52
진통문화예절교육	2	2		4	6.35
한국역사 교육	1	2		3	4.76
한국어교육	3			3	4.76
독서프로그램 : 독서회, 독서교실	2			2	3.17
기타		2		2	3.17
합계	45	18	0	63	100.00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외국과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외국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은 다문화주의 모델, 동화주의 모델, 배제주의 모델로 구분하여 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도서관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원주의 모델인 미국에서는 홈페이지에 외국어로 된 도서관 안내 및 자료검색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다중언어로 된 자료를 구비하고 정보활용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이주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 채용, 이주민을 위한 독서관련 프로그램 실시 및 문화행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다양한 민족의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연계하고 있었으며 이민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었다.

둘째, 동화주의 모델인 영국은 소수 민족을

위한 교육기회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영어에 서툰 초·중등학생들에게 공교육을 통한 별도의 교육과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화적 차이와 학업 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여 쟁점화하고 있었다.

셋째, 배제주의 모델인 일본은 다문화 자료 코너를 설치하여 자료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각 나라의 민화, 옛이야기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번역에 힘을 기울이는 등 특유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외국어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었는데 도서뿐만 아니라 비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독서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담당 사서, 다문화프로그램 강사, 다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

정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다문화 담당 사서들은 다문화관련 업무 이외에도 도서관 행사, 도서관 신문 발간, 자료실의 총괄적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열람 및 참고 봉사 업무, 수서업무, 분류/목록 업무를 담당하여 담당 사서의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상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프로그램 강사의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족의 협력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국인 반려자를 맞이한 가정의 가족들, 특히 남편과 시부모 등에 대한 가족교육을 비롯하여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태도개선 교육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 기관과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과 취약계층에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다문화 가정 이주민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로는 교통불편을,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으로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한국에 대한 이해, 한국어, 한국문화, 부모교육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도서관에서 운영하길 원하는 자녀교육프로그램은 연령별에 의한 체계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 교과연계 학습지도 프로그램,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들었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가진 직원이 배치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한 답변에서 나타난 문제는 어린이에 대한 프로그램도 적고 그에 따라 응답자가 소수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자로서의 응답내용은 프로그램 개선에 참고할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이유는 모두 수업과 연관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만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교나 다른 곳에서 하는 수업과 다른 점이 없어서 불만스럽다는 의견이 그것이었다.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유적탐방, 컴퓨터교육, 종이접기와 미술교실 등이었으며, 이주민과는 달리 한국어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다른 친구들과의 어울림과 재미에 큰 흥미를 나타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서 이용자들이 다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나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문에 응한 사서, 프로그램강사, 이주민, 어린이들이 대부분 다문화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확보나 상부기관 및 협력 관계 연계의 어려움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재미가 없으며, 타기관과 중

복된 내용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도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주민들은 도서관에서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지만 교통편이 없어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제대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내의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티븐 카셀(Steven Castle)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귀화기준이나 이민정책은 독일, 일본 등과 함께 배제주의 모델에 해당하지만,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이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각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중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한 것들을 단계별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공공도서관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서비스의 모델로 참고할만하다.

둘째, 현 단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유형별로 그에 맞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고, 학교이탈 현상이 심각한 외국인 근로자가정과 새터민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도서관의 교육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녀들의 학교수업과 자발적 학습을 도와주고, 사회적응과 정체성 확립을 도와줄 수 있는 평생교육적 차원의 서비스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의 낭비를 막고, 업무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해 타 다문화지원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 기관을 조사하고 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문화 서비스 혜택이 이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주어지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각 기관별 행사나 교육을 실시할 때 타기관의 협조를 얻어 도서관 이용이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정례화 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도서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현황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서비스 인력· 예산· 자료· 시설 등 모든 자원이 미비한 가운데 다문화담당사서의 업무과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다문화 서비스 인력으로 사서의 확충, 사서 재교육, 강사교육, 이주민의 활용, 자원활동가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 서비스를 위해 자료개발과 장서구축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다문화 자료는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이주민의 국적을 조사하여 이들 국가의 언어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이주민의 모국어)로 자료가 개발되어야 하고,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고른 발달을 위한 시청각 및 동영상 등 다매체 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복본 구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의 접근점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

이주민의 도서관 방문이나 도서관의 다문화가정 방문서비스를 위하여 교통지원시스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별 단위 도서관에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단위도서관에서 구축하기 역부족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개발팀(task force)을 구

성하여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장서개발, 지역 협력 프로그램개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발 등을 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자료의 분류와 목록시스템 개발이나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국가 단위 도서관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광미. 2006. 『일본 어린이도서관 고찰』,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 [2] 김갑성. 2006.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학과 국제사회문화연구전공.
- [3] 김갑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 [4] 김대수.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 [5] 김순필.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사서교육전공.
- [6] 김이선, 한건수, 김민정.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연구원.
- [7] 김정원. 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16(3): 95-129.
- [8] 박미영. 2007.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독서활성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15-339.
- [9]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 [10] 박은정. 2008.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안』,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 [11] 박정원. 2007. 『초등학생의 국제결혼 자녀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서일민. 2008. 이야기를 통한 어린이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제2회 국제심포지엄자료집』.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 31-60.
- [13] 오성배. 2005. 코시안을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만들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제118호(2월),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14] 윤정옥. 2007.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진흥활동.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165-184.
- [15]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16] 조영달 외. 2006.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과제 최종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 [17] 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45-270.
- [18] 조응태. 2006.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도덕 교육. 『도덕교육학 연구』, 7(1): 41-67.
- [19] 최연미. 2005.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공공도서관의 한국 자료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2): 107-121.
- [20] 한진상. 2007.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실태연구: 코시안의 집 아동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문학적 성찰과 다문화교육 현장실천 사례. 제3회 경기다문화교육포럼 및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 91-106.
- [21] 홍영숙. 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행정·정책전공.
- [22] Philp Gill, 장혜란 역,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3] Fran Levin. 2007. “Encouraging Ethical Respect Through Multicultural Literature.” *The Reading Teacher* 61(1): 101-104.
- [24] Jean Ketter. 2001. “Already Reading Texts and Contexts: Multicultural Literature in a Predominantly White Rural Community.” *Theory into Practice*, 40(3): 175-183.
- [25] Lynda veltze. 2004. “Multicultural Reading.” *School Library Media Activities Monthly*, 20(9): 24-26.
- [26] Maria Resisberg, Birgitte Brander & David A. Gruenewald. 2006. “Your Place or Mine?: Reading Art, and Culture in Multicultural Picture Books.” *Teacher Education Quarterly*, 33(1): 117-134.
- [27] Mary Ann Wham, June Barnhart & Greg Cook. 1996. “Enhancing Multicultural Awareness Through The Storybook Reading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30(1): 1-7.
- [28] Rita Cox & Ann Gagnon. Multicultural programming. Ontario : CLA, 1989.

- [29] Toronto Public Library. [cited 2009.3.10].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mul_ser_index.js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wang-Mi Ko. 2006. *Review of children's libraries in Japan*. Graduate thesis, Yonsei University.
- [2] Kap-Sung Kim. 2006.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Gradu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3] Gab-Hyun Kim. 2007. *A Study on The education program helping immigrant female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s: focusing on life-long education program of public libraries and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in Chonnam province, Republic of Korea*. Graduate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4] Dae-Su Kim. 2008. *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Graduate thesis, Chosun University.
- [5] Soon-Feel Kim. 2008. *The Roles of the school libraries in the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Graduate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6] I-Seon Kim, Geon-Su Han, and Min-Jeong Kim. 2006. *Gukjegyeolhon Ijyeseongui Mumhwajeok Galdeung Gyeonheomgwa Sotongjeungjineul wihan jeongchaekgwan*. Seoul: 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 [7] Jeong-Won Kim. 2006. "The realities of schooling for migrant worker's children from Mongolia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3): 95-129.
- [8] Mi-Young Park. 2007.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Library Reading Through Special Quality Service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315-339.
- [9] Eun-Ae Park. 2007.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Graduate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10] Eun-Jung Park. 2008. *The Construction of a program for enhancing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bicultural students in fifth or sixth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Graduate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1] Jeong-won Park. 2007. *How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marriage?"* Graduate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2] Il-Min Suh, 2008. "The Multicultural Services of Children's Libraries through Story Telling."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Jaryojip*, 2: 31-60,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13] Sung-Bae Oh, 2005(Feb.). "Kosianeul Saeroun Soeogyechungeuro Mandeul geosinga?" *Gyoyuk-jeongchaek Forum*118,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14] Cheong-Ok Yoon, 2007. "The Reading Promotion Campaigns for Children of Public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165-184.
- [15] Eun-Hee Joeng, 2004. "A Study on the Languag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Living in an Agricultural Village."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13(3): 33-52.
- [16] Young-Dal Jo, et al, 2006. *Damunhwa Gajeongui Janyeogyoyuk Siltaejosa Yeonguyongyeokgwaje Choejongbogoseo*,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17] Yong-Wan Cho, 2007. "Current Status of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38(2): 245-270.
- [18] Eung-Tae Jo, 2006. "Gukjegyeolhon Gajeong Janyeoreul wihan Dammunhwa Dodeok Gyoyuk." *Dodeok Gyoykhak Yeongu*, 7(1): 41-67.
- [19] Yeon-Mi Choi, 2005. "A Study on the Service of Korean Language Materials in the Arlington Public Library, Texa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2): 107-121.
- [20] Jin-Sang Han, 2007. "Damunhwagajeong Aideului Hakseupkwon Chimhae Siltaeyeongu: Kosianui Jip Adongdeuleul Joongsimeuro"(Damunhwasahoereul wihan Inmunhakjeok Seong-chalgwa Damunhwagyoyuk hyeonjangsilchoen Sarye.) *Je3hoe Kyeongkidamunhwagyoyuk forum mit Kyoungki University Inmungwahakyeonguso Chugyehaksuldaehoe Ja8yoyip*, 91-106.
- [21] Young-Sook Hong, 2007. *A study on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 of multicultural family and its implications* Graduate thesis,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22] Philp Gill, 2002. *The Public library service: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Translated by Hey-Ran Jang).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